

흡연남성의 흡연지식, 태도 및 금연경험에 관한 연구

최 경 원¹

¹경인여자대학 간호과 초빙교수

The Knowledge, Attitude on Smoking and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in Male Smokers

Choi, Kyung Won¹

¹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Purpose: The study were to identify smoking knowledge, attitude on smoking and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in male smok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174 male smoker in Seoul and Inchun,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8th of December in 2007 to 16th of March in 2008.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computer program. The tools were used with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Result:** Participants showed that a high level of smoking knowledge score 48.20 (± 5.27) of total 57. Participants showed that a high level of score 40.80 (± 6.81) of total 60.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knowledge ($r=.319$ $p=.000$).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level of smoking knowledge was related to the level of smoking attitude. Therefore, these finding give useful information for constructing a smoking cessation program in male smokers.

Key words :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건강문제 가운데서 생활양식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보고가 많이 발표되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생활양식을 건강에 이롭게 실천하여 건강의 위험요소들을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생활양식과 관련된

건강 위험 요소들 가운데 흡연은 암,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 등 건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예방가능한 제1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보는 흡연 습관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금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비해 여전히 20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4.1%에 이르고 있으며 흡연자들의 지식과 태도 변화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Woo, 2002).

주요어 : 흡연태도, 흡연지식, 금연경험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Kyung Won(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Gyesangil 101, Kyeyang-gu, Inchon, Korea

Tel: 82-32-540-0194 Fax: 82-32-555-2614 E-mail: ckw1456@kic.ac.kr

투고일: 2008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22일

지식이라 하면 시각, 경험, 문서 등에 의해 얻어진 사실들에 대한 지적 습득으로 행동 변화의 중재자 역할을 말한다. 이는 지식 없이는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건강 행동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은 행동 변화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imons-Morton, Bruce, Greene, & Gottfried, 1995). 특히 흡연 지식이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흡연 지식의 축적으로 학습된 결과가 흡연 태도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흡연 지식이 높다는 것은 흡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므로 흡연 지식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흡연지식은 금연을 유도하거나 흡연 감소를 동기화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연 행위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흡연태도는 개인의 흡연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으로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중재요인 이므로 흡연행위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건강 교육에 있어 흡연 행동의 중요한 건강상의 중재요인이 된다 (Choi, 2000).

이러한 맥락에서 Dozis, Farrow와 Miser(1995)는 금연 유도과 흡연 감소를 동기화시키는 요인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Kim(2005)과 Jeong(2005)은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는 금연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식과 태도는 건강 위험 행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는 흡연 행위와 금연 행위의 중재자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흡연과 금연 관련 연구 동향 및 미래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Shin(2006)의 각 전문 간호 학술지 창간호부터 2005년 10월까지 게재된 흡연과 금연 관련 연구에서 주요 개념으로 흡연의 태도와 지식을 다룬 연구가 많았으나 다수가 초등학교, 청소년, 여고생, 고등학교, 대학생, 여대생을 대상으로 흡연 태도나 지식에 관한 연구로 흡연 행동에 강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는 연구들이었다(Choi, 2000; Lim, Lee, Choi, & Kim, 2004; Park, 2002; Park & Kang, 1996). 그러나 성인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지식, 흡연 태도에 관한 연구(Kim, 2005; Ann, 2003)는 미비한 실정이며

흡연 지식, 흡연 태도에 따른 흡연 행위와 금연 행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 특성, 금연 경험과 관련된 특성,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를 파악하고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예방 가능한 건강 위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흡연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금연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흡연 남성들의 성공적인 금연 유지를 위한 금연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흡연 남성의 흡연 특성을 파악한다.
- 2) 흡연 남성의 금연 경험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
- 3) 흡연 남성의 흡연 지식을 파악한다.
- 4) 흡연 남성의 흡연 태도를 파악한다.
- 5) 흡연 태도와 흡연 지식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흡연 지식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유발되는 질병 등에 대한 지식으로 본 연구에서 흡연 지식은 Park과 Kang (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성인 흡연자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흡연 태도

흡연에 대한 느낌, 자세, 몸가짐으로 본 연구에서 흡연 태도는 Moon(200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성인 흡연자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금연 경험

금연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Jeong(2005)과 Ann(2003)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한 도

구로 측정된 내용을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연 남성의 흡연 특성, 금연 경험과 관련된 특성,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성인 남성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배부된 설문지 210부 중 181부를 회수하여 불완전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74부를 본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흡연 지식

Park과 Kang(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과 흡연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성인 흡연자에게 맞도록 어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렇다 3점, 모르겠다 2점, 아니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는 최소 19점에서 최대 5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Park과 Kang (1996)의 흡연 지식은 20문항이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73이었다.

2) 흡연 태도

Moon(2005)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흡연 태도를 묻는 17문항이었으나 성인 흡연자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언제나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을 나쁜 행동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흡연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Moon(2005)의 흡연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02였다.

3) 금연 경험

성인 남성의 금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Jeong(2005)과 Ann(2003)이 금연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1인과 금연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의미의 정확성과 어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금연경험 유무, 금연 횟수, 금연 기간, 금연 동기, 금연 방법, 금연을 위한 도움 방법, 금연 실패 이유, 금단 증상, 추후 금연 계획, 금연 시 발생하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 금연에 대한 자신감 등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결과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흡연 특성, 금연과 관련된 특성,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으며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29세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4.2세였다. 학력은 고졸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이 33.3%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3.0%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58.0%로 기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4)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 편차
연령	20-29세	92	52.9	34.25±13.03
	30-39세	16	9.2	
	40-49세	30	17.2	
	50세 이상	36	20.7	
학력	중졸 이하	7	4.0	
	고졸	98	56.3	
	대졸	61	35.1	
	대학원 이상	6	3.4	
직업	무응답	2	1.2	
	전문직	20	11.5	
	사무직	22	12.6	
	판매직	9	5.2	
	생산직	18	10.3	
	서비스직	30	17.2	
	학생	58	33.3	
	무직	1	0.6	
기타	15	8.6		
종교	무응답	1	0.6	
	기독교	40	23.0	
	불교	21	12.1	
	천주교	22	12.6	
결혼상태	무교	91	52.3	
	기혼	67	38.5	
	미혼	101	58.0	
	별거/이혼	5	2.9	
월소득	사별	1	0.6	
	100만원 이하	33	19.0	
	100-200만원	59	33.9	
	200-300만원	32	18.4	
	300-400만원	26	14.9	
	500만원 이상	15	8.6	
건강상태	무응답	9	5.2	
	매우 건강	21	12.1	
	건강	68	39.1	
	보통	69	39.7	
	건강하지 못함	14	8.0	
	매우 건강하지 못함	1	0.6	
생활습관병유무	무응답	1	0.6	
	있다	18	10.3	
	없다	154	88.5	
	무응답	2	1.2	

났으며 월 소득은 100~200만원 33.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보통 39.7%, 건강 39.1%, 매우 건강 12.1%, 건강하지 못함 8.0%, 매우 건강하지 못함 0.6%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의 90.9%가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습관병 유무는 없다 88.5%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특성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특성

(N=174)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 편차
현 흡연유무	예	134	77.0	
	아니오	40	23.0	
흡연 시작연령	13세 이하	1	0.6	19.11± 2.96
	14-16세	27	15.5	
	17-19세	57	32.7	
	20-24세	74	42.5	
	25-29세	5	2.8	
	30세 이상	2	1.2	
	무응답	8	4.5	
흡연기간	5년 이하	52	29.9	14.22±11.12
	6-10년	37	21.3	
	11-15년	14	8.0	
	16-20년	13	7.5	
	21-30년	36	20.7	
	30년 이상	14	8.0	
	무응답	8	4.5	
흡연량	15개비 이하	94	54.0	
	16-25개비	42	24.1	
	26개비 이상	21	12.1	
	무응답	17	9.8	
금연구역에서 흡연욕구조절	예	53	30.5	
	아니오	109	62.6	
	무응답	12	6.8	
하루 중 금연하기 힘든 담배	아침 첫담배	84	48.3	
	아침 첫담배를 제외한 다른 담배	72	41.4	
	무응답	18	10.3	
아플때 흡연유무	예	63	36.2	
	아니오	98	56.3	
	무응답	13	7.5	
흡연시 담배연기 들이마시기	전혀 아니다	13	7.5	
	자주 그렇다	83	47.7	
	항상 그렇다	67	38.5	
	무응답	11	6.3	
흡연하는 가족 유무	예	68	39.1	
	아니오	103	59.2	
	무응답	3	1.7	
가족 중 흡연하는 분	아버지	58	72.5	
	어머니	3	3.75	
	배우자	0	0.0	
	형제/자매	16	20.0	
	자녀	1	1.25	
기타	2	2.5		

대상자의 현재 흡연 유무는 예 77.0%, 아니오 23.0%로 나타났으며 흡연 시작 연령은 20~24세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흡연 시작 연령은 19.1세였다. 흡연 기간은 5년 이하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흡연량은 15개비 이하 54.0%로 나타났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욕구 조절 유무는 아니오 62.6%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욕구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금연하기 힘든 때는 아침 첫 담배가 48.3%로 나타났다.

아플 때 흡연 유무는 아니오 56.3%로 나타났으며 흡

연 시 담배 연기 들이 마시기는 자주 그렇다 47.7%, 항상 그렇다 38.5%로 나타났으며 주로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하는 가족 유무는 아니오 59.2%로 나타났으며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33.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도 1.7%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금연 경험과 관련된 특성

대상자의 금연 경험과 관련된 특성은 (Table 3)과 같다.

금연 경험은 예 75.3%로 나타났으며 금연 시도 횟수는 3회 23.6%, 2회 18.3%, 1회 16.7% 순으로 나타났

다. 금연 시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도 4.50%로 나타났으며 평균 3.95회로 나타났다.

금연 기간은 1~3개월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금연 동기는 건강을 위해서 6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싫어해서 19.1%로 나타났다.

금연을 위한 도움 방법으로는 도움 받은 적이 없다 5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의 도움과 가족의 도움이 각각 19.1%로 같았으며 금연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도움은 2.3%에 불과 하였다. 가장 많은 금연 시도 방법은 본인의 의지가 65.6%, 서서히 줄이기 14.5%, 금연초 12.9%, 다음으로 금연침과 니코틴 패취

Table 3. 대상자의 금연 경험과 관련된 특성

(N=174 또는 N=131)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 편차
금연 경험	예	131	75.3	3.95±4.20
	아니오	39	22.4	
	무응답	4	2.3	
금연 시도 횟수	1회	22	16.7	
	2회	24	18.3	
	3회	31	23.6	
	4회	10	7.7	
	5회	16	12.2	
	6회	1	0.7	
	7회	1	0.7	
	8회	2	1.5	
	10회	6	4.5	
	20회 이상	4	3.1	
	무응답	14	10.6	
금연기간	1-3개월	73	55.7	
	4-9개월	17	12.9	
	10-12개월	9	7.0	
	1-2년	11	8.4	
	2-3년	6	4.5	
	3년 이상	10	7.7	
	무응답	5	3.8	
금연 동기	건강을 위해서	83	63.3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10	7.7	
	가족이 싫어해서	17	12.9	
	친구가 싫어해서	12	9.2	
	신앙생활 때문에	4	3.1	
	기타	5	3.8	
금연을 위한 도움방법	금연프로그램/전문가의 도움	3	2.3	
	친구의 도움	25	19.1	
	가족의 도움	25	19.1	
	금연프로그램, 전문가, 친구, 가족 모두의 도움	3	2.3	
	도움 받은 적이 없다.	75	57.3	

Table 3. 대상자의 금연 경험과 관련된 특성(계속)

(N=174 또는 N=131)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 편차
가장 많은 금연시도 방법	금연침	3	2.3	
	금연초	17	12.9	
	금연클리닉(병원)	2	1.5	
	금연프로그램(보건소)	1	0.7	
	니코틴패취, 니코틴껌	3	2.3	
	서서히 줄이기	19	14.5	
	본인 의지	86	65.6	
금연 실패 이유	주위 유혹	23	17.5	
	금단 증상	17	12.9	
	스트레스	59	45.0	
	술 마시는 자리	32	24.5	
금연 시 나타난 증상	불안/초조	42	32.1	
	과민	10	7.7	
	집중력 저하	11	8.4	
	업무능력감소	1	0.7	
	공복감	6	4.5	
	체중증가	8	6.1	
	수면장애	1	0.7	
	흡연에 대한 갈망	37	28.3	
	증상 없음	15	11.5	
	견디기 힘들때 도움 받은 행동	물을 마심	36	27.5
음식을 먹음		41	31.36	
산책을 함		2	1.5	
운동을 함		17	12.9	
특별히 없음		35	26.7	
원할 때 금연 가능하다고 생각함	예	88	50.6	
	아니오	70	40.2	
	무응답	16	9.2	
평소 금연에 대한 생각	생각해 본적 없다	16	9.2	
	언젠가 할 것이다	77	44.3	
	가까운 시일내 할 것이다	38	21.8	
	현재 금연 중이다	29	16.7	
	무응답	14	8.1	

와 니코틴 껌이 각각 2.3%로 나타났으며 주로 본인의 의지로 서서히 줄여가는 방법으로 금연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실패 이유는 스트레스 45.0%가 가장 많았으며 술 마시는 자리 24.5%, 주위 유혹 17.5%, 금단 증상 12.9% 순으로 나타났다.

금연 시 나타난 증상은 불안·초조 32.1%, 흡연에 대한 갈망 28.3%로 높게 나타났으며 견디기 힘들 때 도움 받은 행동으로 음식을 먹음 31.3%, 특별히 없음 26.7%, 물을 마심 27.5%로 나타났다.

원할 때 금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 50.6%로 나타났으며 평소 금연에 대한 생각으로 언젠가

할 것이다 44.3%,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이다 21.8%로 나타났으며 생각해 본적 없다 9.2%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흡연 지식

대상자의 흡연지식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흡연 지식의 총점은 57점 만점에 48.20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흡연 지식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가 2.88(±0.3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Table 4. 대상자의 흡연 지식

(N=174)

	문항	평균±표준편차
1	담배의 중독성 및 습관성을 일으키는 성분은 니코틴이다.	2.80±0.46
2	담배를 피우면 운동능력이 떨어진다.	2.57±0.61
3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2.46±0.80
4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다.	2.51±0.63
5	담배를 조금씩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1.54±0.76
6	담배의 성분 중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은 타르이다.	2.65±0.53
7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2.38±0.74
8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2.88±0.36
9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면 태어나는 아기의 체중이 감소된다.	2.43±0.62
10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다.	1.30±0.59
11	하루 한 개비 정도 흡연하는 것은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다.	1.69±0.78
12	연기를 들어 마시지 않고 뼈끔 담배만 피우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	1.50±0.69
13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아프게 된다.	1.26±0.78
14	어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	2.26±0.60
15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2.54±0.66
16	담배를 많이 피우면 가래가 많이 생긴다.	2.82±0.45
17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2.88±0.39
18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	2.66±0.56
19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2.51±0.64
	총 점	48.20±5.27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면 해롭다.”가 2.87(±0.36)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가 1.54(±0.80)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5. 대상자의 흡연 태도

대상자의 흡연 태도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흡연 태도 평균 점수는 60점 만점에 40.80으로 중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을 옳지 않은 행동으로 보는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 태도를 측정하는 12문항 중 “흡연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가 4.29(±0.8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학생 흡연은 막아야 한다”가 4.07(±1.16)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피우면 기분 전환이 된다”가 2.50(±0.9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Table 5. 대상자의 흡연 태도

(N=174)

	문항	평균±표준편차
1	담배를 피우면 안정감을 준다.	3.47±0.97
2	담배를 피우면 기분전환이 된다.	3.50±0.94
3	흡연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	4.29±0.89
4	주위에서 담배를 권하면 거절할 수 있다.	3.08±1.21
5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담배를 피운다.	2.09±1.23
6	학생 흡연은 막아야 한다.	4.07±1.16
7	담배 광고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3.38±1.37
8	담배 자판기 설치는 금지되어야 한다.	3.55±1.30
9	담배 경고 문구는 더욱 상화되어 표기되어야 한다.	3.90±1.13
10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2.79±1.13
11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3.00±1.16
12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절대로 피워서는 안된다.	3.04±1.44
	총 점	40.80±6.81

6. 대상자의 흡연 태도와 흡연 지식과의 관계

대상자의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는 상관관계가 $r = .31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0$)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흡연 시작 연령은 19.1세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과 Kim(2001)의 연구 결과에서 중학교 1,2학년보다 높았으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Lee(2006)의 20세 미만(42.8%)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흡연 시작 연령이 24세 미만인 경우는 92.4%로 나타났으며 30세 이상인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세 이후에는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청소년기와 대학생 때 흡연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흡연 시작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효과적인 흡연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금연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연 경험이 있는 경우가 75.3%로 Lee(2006)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6.3%와 유사하며 KASH(2005)의 6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70% 내외에서 금연을 시도하고 경험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금연 열풍과 국가적인 금연 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2.4%에서 금연 경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금연 시도자들의 지속적인 금연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 모색과 관련된 연구 뿐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 홍보 프로그램과 금연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 유발 요인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연 기간은 1~3개월이 55.7%로 가장 많았고 금연 시도 평균 횟수가 3.95회로 Lee, Meng, Lee, Yang, Lee와 Kim 등(2003)의 2.17회보다 높았으나 Kim(1991)의 4.15회와 유사하였다. 이는 흡연자들은 금연시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연 시도를 해도 금연 유지 기간이 1~3개월로 짧은 기간이며 1년 이상을 지속하는 경우도 20.6%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금연 유지 기간이 매우 짧고 금연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금연에 대한 생각이 “자신이 원할 때 금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40.2%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평소 금연에 대한 생각은 금연 계획은 언젠가는 금연을 할 것이다가 44.3%,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이다 21.8%로 금연을 계획하는 경우가 66.1%로 흡연자의 72.8%가 앞으로 금연 계획이 있다는 KASH(2006) 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금연 경험은 75.3%, 금연 시도횟수 3.95, 앞으로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 82.8%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흡연자들은 금연을 원하고 금연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금연 유지 기간이 상당히 짧으며 금연을 시도해도 성공적인 금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했을 때 금연 의지를 지지하고 금연 유지기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금연 단계별 지지 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 대상자들의 금연 동기는 첫째로 건강을 위해서 63.3%로 Lee(2006)의 건강에 해가 될까봐 46.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생활 방식과 건강관리를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금연을 결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해 자각하는 건강 문제와 40대, 50대 성인 남성들이 자각하는 건강 문제가 흡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분석하여 금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금연 교육 프로그램에 연령층에 따라 흡연으로 유발되고 인식되는 건강 문제를 구체화시켜 이와 관련된 금연 교육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금연을 위한 도움 방법은 도움 받은 적이 없다 57.3%, 가족의 도움 19.1%, 친구의 도움 19.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연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도움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연 경험이 75.3%, 금연 계획이 82.8%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이외에는 금연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Jeong(2005)의 연구에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

언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40.7%인 것과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금연 시도 방법에서는 본인 의지가 65.6%, 서서히 줄이기 14.5%, 금연초 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인의 의지로, 서서히 줄이는 방법으로 금연을 시도한 경우가 60.3%로 볼 수 있다. 이는 Ann(2003)의 연구에서 스스로 의지가 96.4%로 높게 나온 것과 차이가 있으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유지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의지 또는 서서히 줄여가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금연 의지를 약화시키고 금연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여지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 금연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거나 홍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금연 실패 이유를 스트레스 45.0%, 술 마시는 자리 24.5%, 주위 유혹 17.5%, 금단 증상 12.9% 순으로 나타난 것은 Lee 등(2003)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52.0%, 습관적으로 18.6%, 술자리 17.1%, Ann(2003)의 연구에서 금단 증상 45.7%, 술자리 흡연 35%, 스트레스 8.6%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금연 실패 이유로 스트레스, 술자리, 금단 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단 증상으로 불안·초조 24.1%, 흡연에 대한 갈망 21.3%로 나타났으며 Lee 등(2003)의 연구에서도 간절함, 나른함, 집중장애, 불안, 식욕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단 증상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금단 증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금단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금연 실패 이유로 부각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흡연이 아닌 대체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흡연 지식 정도는 48.20(57점 만점)으로 직장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Kim(2005)의 15.37(23점 만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2005)의 17.40(20점 만점)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은 “담배를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간접흡연의 폐해”, “암 발생의 원인은 타르이다”와 “흡연의 중독성”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담배를 조금 피우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자주 아프다” 등에서는 지식 정도가 낮았다. 이는 Ryu, Choi와 Kim(2002)의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에 관한 지

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학부모의 흡연 지식을 보면 니코틴 중독성 89.5%, 구강 영향 93%, 암 발생 65.0%, 조기 사망 76.2%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으며 비흡연자보다 잦은 질병 47.6%, 감기 잘 걸림 42.5% 등에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로써 흡연 지식에 대한 교육 내용에 흡연의 유해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암 발생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건강 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흡연 태도는 40.80(60점 만점)으로 Ann(2003)의 연구에서 26.25(40점 만점)와 Kim(2005)의 연구에서 57.12(95점 만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2005)의 23.69(48점 만점)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Ann(2000) 연구에서 20.66(48점 만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 남성들이 흡연에 대한 태도가 대학생이나 여고생보다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며 성인 흡연 남성들은 흡연에 대해 부정적이며 금연 이점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Ryu 등(2002)의 연구에서 학부모의 흡연 태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인의 담배 심부름 91.0%, 공공장소 흡연 금지 90.2%, 흡연하면 성인 같다 92.4%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흡연 장면을 보면 피우고 싶다, 남자 흡연은 괜찮다, 흡연 권유 시 거절 못한다 항목에서 비교적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흡연 지식이 높을수록 흡연 태도가 바람직한 것을 볼 때 흡연지식이 흡연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 금연 행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흡연의 유해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암 발생 원인뿐 아니라 연령대 별로 차별화시킨 건강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지식은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됨으로 성공적인 금연 유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성공적인 금연 유지를 위한 금연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성인 남성 17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가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 특성, 금연과 관련된 특성,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으며 흡연 지식과 흡연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20~29세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4.2세였다. 학력은 고졸이 56.3%, 직업은 학생이 33.3%, 종교는 무교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58.0%로 기혼보다 많았으며 대상자가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90.9%가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습관병은 없다가 88.5%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흡연 유무는 예가 77.0%로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 시작 연령은 20~24세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흡연 시작 연령은 19.1세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금연 경험은 예가 75.3%로 나타났으며 금연 시도 횟수는 평균 3.95회로 나타났으며 금연 기간은 1~3개월이 42.0%로 가장 많았고, 금연 동기는 건강을 위해서가 47.7%로 가장 많았다.

금연을 위한 도움은 도움받은 적이 없다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은 금연 시도 방법은 본인의 의지가 49.4%로 나타났다. 금연 실패 이유는 스트레스 33.9%로 나타났으며 원할 때 금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 50.6%로 나타났다. 평소 금연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해 본적 없다가 9.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흡연 태도 평균 점수는 60점 만점에 40.80(±6.81)로 중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지식의 평균 점수는 57점 만점에 48.20(±5.26)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흡연 태도는 흡연 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19$ $p=.000$).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흡연 지식이 높을수록 흡연 태도가 바람직한 것을 볼 때 흡연 지식이 흡연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기초로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 금연 행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

다. 이를 위해 흡연의 유해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암 발생 원인뿐 아니라 연령대 별로 차별화시킨 건강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흡연 지식을 높이고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이는 금연 의지와 금연 행동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금연 유지를 위한 촉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 홍보 프로그램에 흡연의 유해성과 초래되는 건강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nn, J. H.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ensity of depression and smoking of high-school girl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Ann, S. J. (2003). *The study of smoking attitude, behavior and smoking of adult m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i, H. Y. (2000).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n smok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Dozis, D. M., Farrow, J. A., & Miser, A. (1995). Smoking pattern and cessation motivation during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0(1), 1485-1498.
- Jeong, M. Y. (2005). *The knowledge, attitude on smoking and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of smoking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unbuk.
- Kim, E. J. (1991). *A study on the determinated of stop smoking by some middle aged men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S. (2005). A study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male smoker.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35(2), 344- 352.
- Korean Association Smoking & Health (KASH) (2005). Smoking & Health, Korean Association Smoking & Health webpage. Retrieved May 5, 2008 from http://www.kash.or.kr/user_new/pds_view.asp
- Korean Association Smoking & Health (KASH) (2006). Smoking & Health, Korean Association Smoking &

- Health webpage. Retrieved May 11, 2008 from http://www.kash.or.kr/user_new/pds_view.asp
- Lee, K. S., Lee, J. W., Lee, W. C., Meng, K. H., Yang, S. I., & Kim, D. S., et al. (200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lapse of smoking in male workers of an electronics industri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 Health*, 42(2), 39-48.
- Lee, S. O. (2006). *A study on the non smoking knowledge and the attitude of smok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 Ju.
- Lim, K. H. Lee, J. H., Choi, M. K., & Kim, C. J. (2004). The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Public Health Research*, 30(1), 57-70.
- Moon, J. H. (2005). *Comparative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self-respect according to smo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rur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Josun University, Gwang Ju.
- Park, Y. J. (2002).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ctivity, knowledge & attitude of 6th grader of elementary school and smo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ck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Y. G., & Kang, Y. J. (1996). Behavior, knowledge and attitude on smoking of prim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7(9), 798-809.
- Ryu, H. G., Choi, S. Y., & Kim, M. O. (2002). The study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haviors in Youngdo-Gu. *Youngdo Research*, 4, 137-155.
- Shin, S. R. (2006). Analysis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related nursing research in Korea and its future dire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36(2), 415-425.
- Simons-Morton, B. G., Bruce, G., Greene, W. H., & Gottlieb, N. H. (1995). *Introduction to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Long Grove Illinois: Waveland Press Inc.
- Yoon, I. S., & Kim, K. H. (2001). Smoking status and nicotine dependency of Taegu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aegu Health College*, 21, 155-171.
- Woo, E. K. (2002). *A study on the knowledge level of smoking and smok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